연구보고서

중소기업 경영상황으로 본 경기진단과 시사점

2015. 5

대한상공회의소

목 차

1. 배경 2

2. 중소기업 경영상황 지표 분석 7

3.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체감 조사 결과 9

4. 시사점 14

1. 배경

□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국내외 각 기관별로 엇갈린 진단

○ IMF는 최근 올해 한국 GDP성장률을 3.3%에서 3.1%로 하향 조정한 반면, OECD는 3월 경기선행지수[1]를 102.0으로 9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발표

○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

-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나, 생산·소비·건설투자 등 실물지표가 완만한 개선 흐름

○ 한국은행도 국내경기에 대해 대외수요가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평가

- 올해 1/4분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지난해 4/4분기보다 개선

○ 반면 KDI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내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- 올해 1/4분기 GDP가 전기대비 0.8% 증가했으나 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

□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등에서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

○ 올해 1/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.4%로 지난해 4/4분기 2.7%에 비해 하락했으며 2014년 1/4분기 3.9% 이후 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

---

1) OECD 경기선행지수는 6~9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재고순환지표, 주가 지수, 장단기 금리 차, 제조업 경기 전망 등을 근거로 산출.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

* 경제성장률(%, 전년동기대비) : 3.4('14.2/4) → 3.3(3/4) → 2.7(4/4) → 2.4('15.1/4)

<그림1> 경제성장률 추이(전년동기대비, 분기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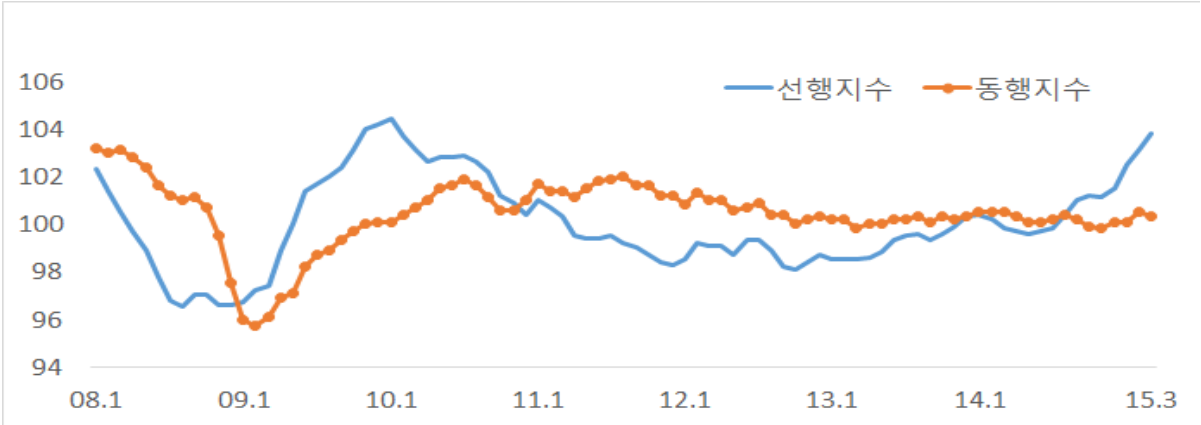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한국은행

○ 반면 3월 동행지수는 100.3으로 기준치(100)를 소폭 상회하고 있으며, 선행지수도 103.8로 2014년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

* 동행지수(순환변동치) : 100.1('14.12) → 100.1('15.1) → 100.5(2) → 100.3(3)

* 선행지수(순환변동치) : 101.5('14.12) → 102.5('15.1) → 103.1(2) → 103.8(3)

<그림2>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추이(순환변동치, 월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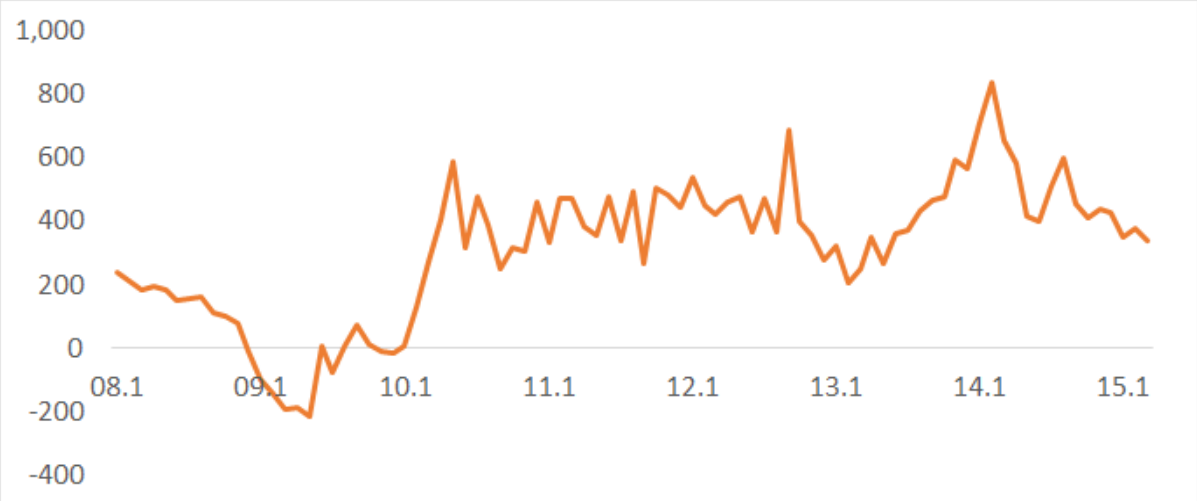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통계청

□ **부문별로 고용, 수출 등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생산, 소비, 투자 등 지표는 개선**

○ 취업자 증감은 1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5.4만명이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2014년 1/4분기 이후 둔화 지속

* 취업자 증감(농림어업 제외, 만명, 전년동기비) : 46.4('14.2/4) → 51.7(3/4) → 42.2(4/4) → 35.4('15.1/4)

<그림3> 취업자수 증감 추이(전년동기대비, 월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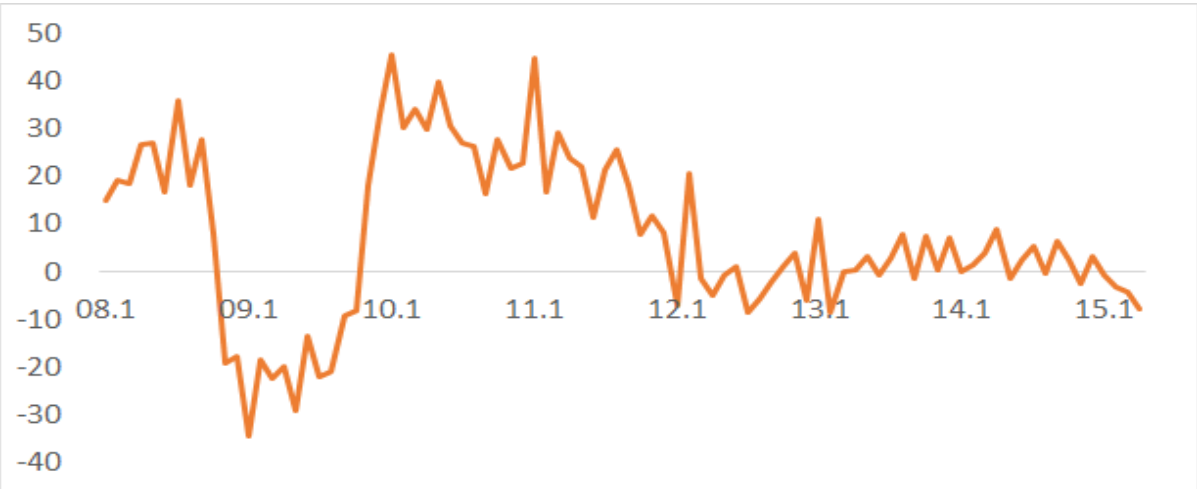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통계청

○ 수출은 1/4분기 전년동기대비 2.9% 감소했으며 2014년 3/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

* 수출 증감(%, 전년동기비) : 3.2('14.2/4) → 3.9(3/4) → 0.9(4/4) → -2.9('15.1/4)

<그림4> 수출 증감 추이(전년동기대비, 월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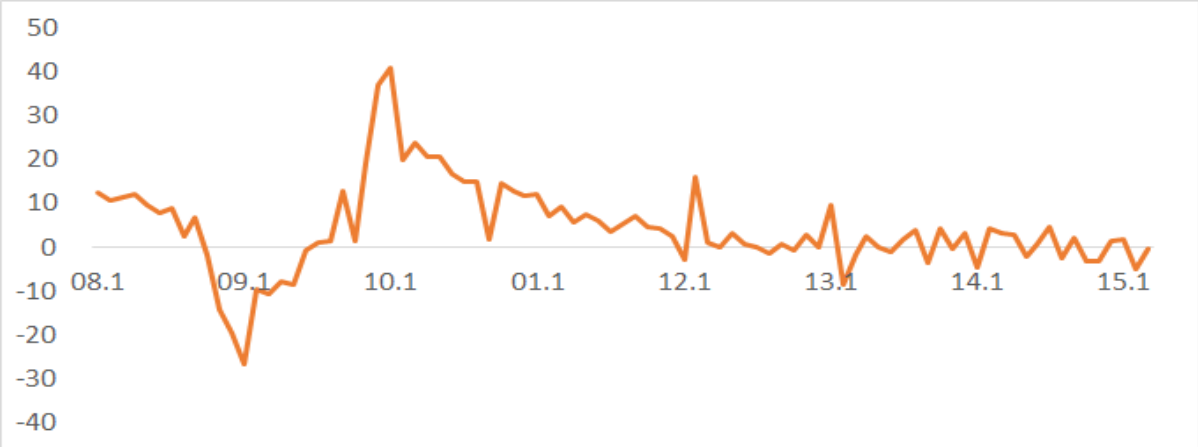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관세청

○ 반면, 제조업 생산은 1/4분기 전년동기대비 0.2% 감소했지만 지난해 4/4분기 1.0%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개선

* 제조업 생산 증감(%, 전년동기비) : -0.7('14.2/4) → 0.1(3/4) → -1.0(4/4) → -0.2('15.1/4)

<그림5> 생산 증감 추이(전년동기대비, 월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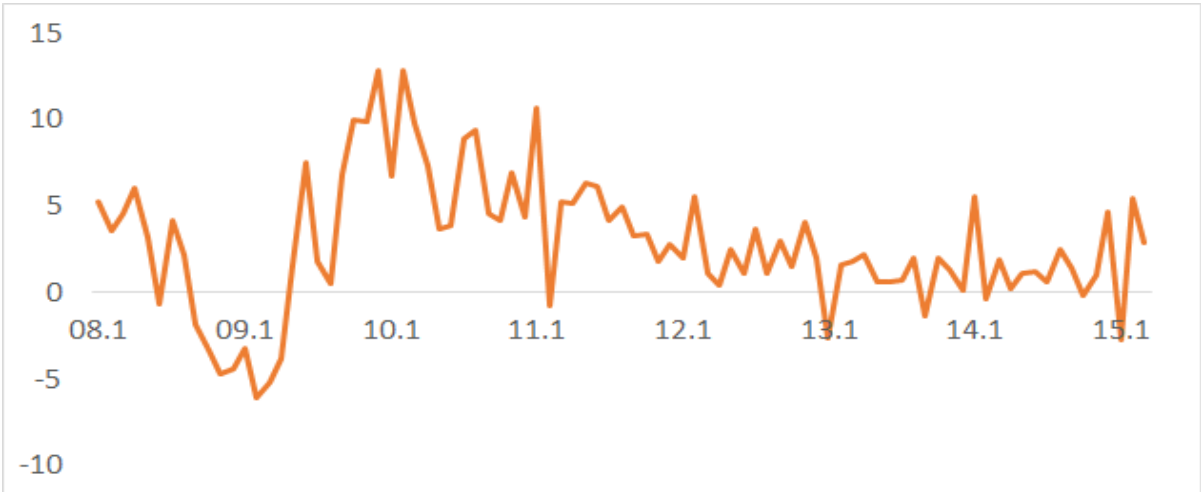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통계청

○ 1/4분기 소매판매도 전년동기대비 1.7% 증가하여 지난해 4/4분기 1.9%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지만 2014년 2/4분기 이후 상승세

* 소매판매 증감(%, 전년동기비) : 0.8('14.2/4) → 1.5(3/4) → 1.9(4/4) → 1.7('15.1/4)

<그림6> 소매판매 증감 추이(전년동기대비, 월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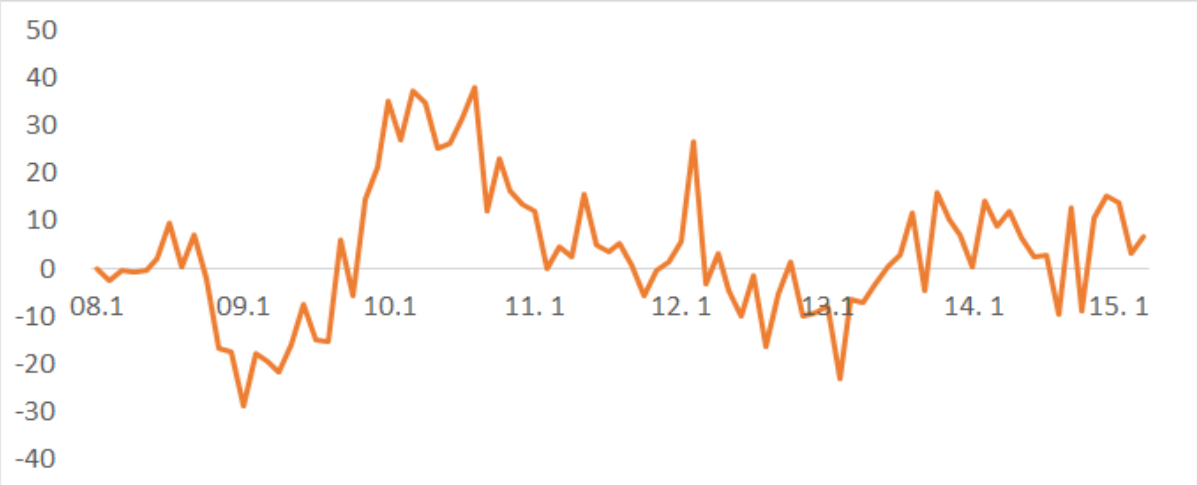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통계청

○ 1/4분기 설비투자도 전년동기대비 7.6% 증가했으며 지난해 3/4분기 이후 상승세

* 설비투자 증감(%, 전년동기비) : 6.7('14.2/4) → 1.5(3/4) → 5.4(4/4) → 7.6('15.1/4)

<그림7> 설비투자 증감 추이(전년동기대비, 월별)



* 출처 : 통계청

□ **이러한 경제상황속에서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경기인식을 파악할 필요**

○ 특히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

-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사업체수의 99.4%, 고용의 77.8%, 생산의 47.6%, 부가가치의 46.8%를 차지(중기청, '13년 기준)

□ **중소기업 경영상황에 대한 실물지표 분석과 체감경기 조사를 통해 현 중소기업의 경기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**

2. 중소기업 경영상황 지표 분석

□ 지난 3년(2012년~2014년)간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은 불황의 깊이는 깊지는 않지만 회복은 더딘 모습

○ 지난 3년간 중소제조업의 성장지표인 생산과 매출은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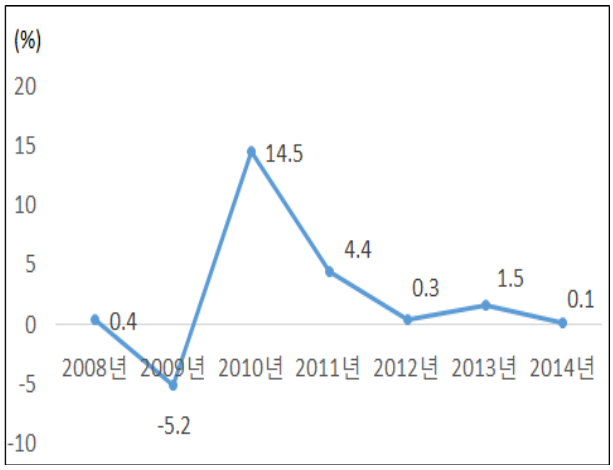
- 중소제조업 생산은 2008년부터 3년간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며 회복하다가 지난 3년(2012~2014년)간 연평균증가율이 1%에도 못미치고 있음

*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(%) : 0.4(08년) → -5.2('09년) → 14.5(10년) → 4.4(11년) → 0.3('12년) → 1.5(13년) → 0.1('14년)

- 기업매출 지표인 출하지수도 2008년부터 3년간은 큰 폭의 변화를 보였으나 지난 3년간은 큰 차이없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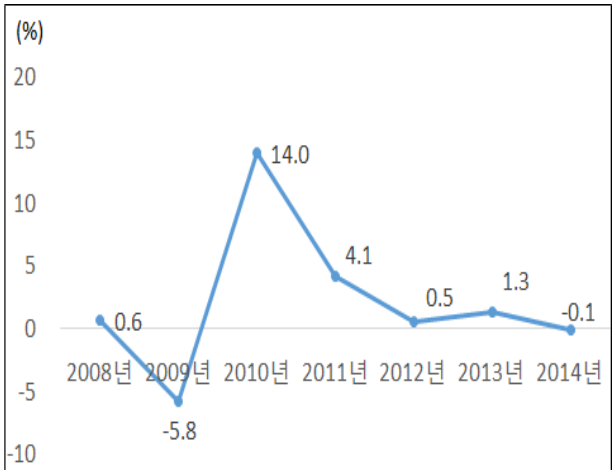
* 중소제조업 출하지수 증감률(%) : 0.6(08년) → -5.8('09년) → 14.0(10년) → 4.1(11년) → 0.5('12년) → 1.3(13년) → -0.1('14년)

<그림8>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

<그림9> 중소제조업 출하지수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

- 평균가동률은 2008년부터 3년간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 3년간은 다소 하락하며 정체성을 보이고 있음

*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(중기중앙회,%) : 69.3(08년) → 68.3('09년) → 72.2(10년) → 72.2(11년) → 71.1('12년) → 71.8(13년) → 71.5('14년)

○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1년 이후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모습

<표1> 중소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(%)

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4.82	4.49	4.53	4.21	4.31	4.40

* 출처 :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

□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정체는 고용 및 투자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

○ 중소제조업체 고용증가율은 2011년 5.4%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-0.1%로 고용의 절대규모가 감소

<표2> 중소제조업 고용증가율 추이(%)

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5.4	4.2	2.4	-0.1

* 출처 :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

○ 설비투자총액증가율도 2011년 9.3%에서 2012년 -3.2%, 2013년 -13.6%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

<표3>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총액 증감률 추이(%)

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-2.6	8.0	9.3	-3.2	-13.6

* 출처 : 중기청 중소기업실태조사

3.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체감 조사 결과

□ 조사 개요

○ 조사 대상 : 중소제조업 300개사

○ 조사 기간 : 2015년 4월 1일 ~ 7일

○ 조사 방법 : 전화 및 팩스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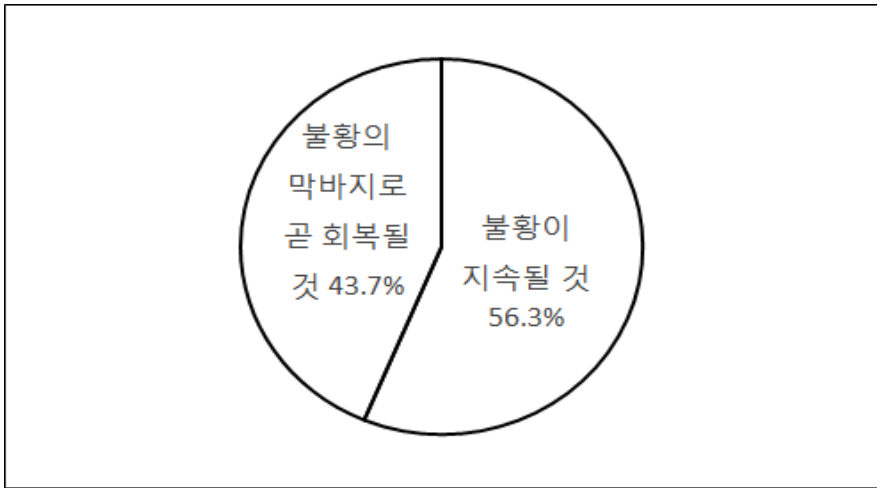
○ 조사대상 특성

기업구분	빈도수	백분비
전　　체	300	100.0%
내수기업	206	68.6%
수출기업	94	31.4%

□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

○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‘불황의 막바지로 곧 회복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43.7%, ‘불황이 지속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56.3%로 의견이 엇갈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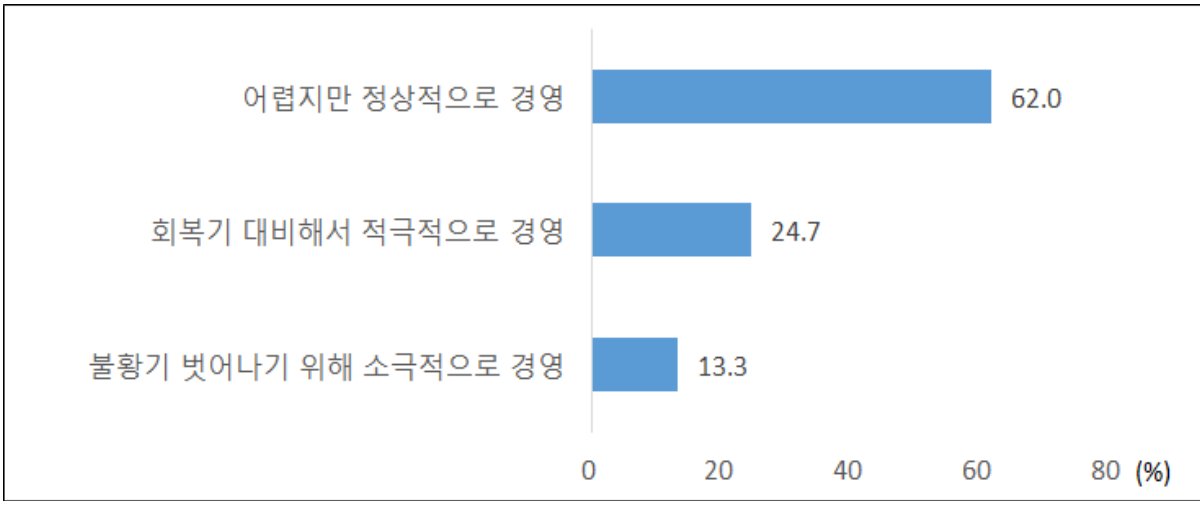
<그림10>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



○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대해 ‘어렵지만 정상적으로 경영한다’는 응답이 62.0%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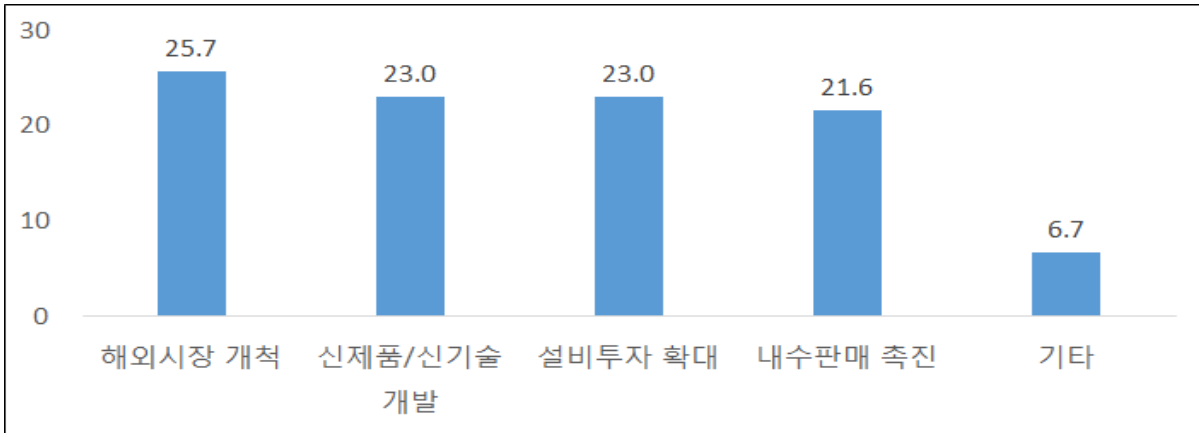
- 이어서 ‘회복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경영한다’는 응답도 24.7%로 나타났으며, ‘불황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경영한다’는 응답은 13.3%에 불과

<그림11>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



- 회복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경영방안으로 ‘해외시장 개척’(25.7%)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‘신제품·신기술 개발’(23.0%), ‘설비투자 확대’(23.0%), ‘내수판매 촉진’(21.6%) 등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<그림12> 회복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경영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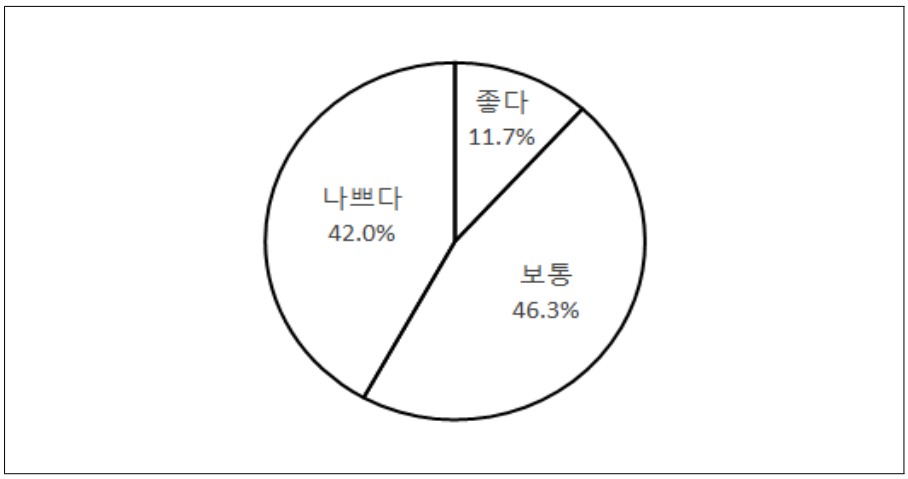


□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및 올해 전망

○ 최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'보통'이라는 응답이 46.3%로 가장 많았음

- 이어서 '나쁘다'는 응답이 42.0%로 '좋다'는 응답(11.7%)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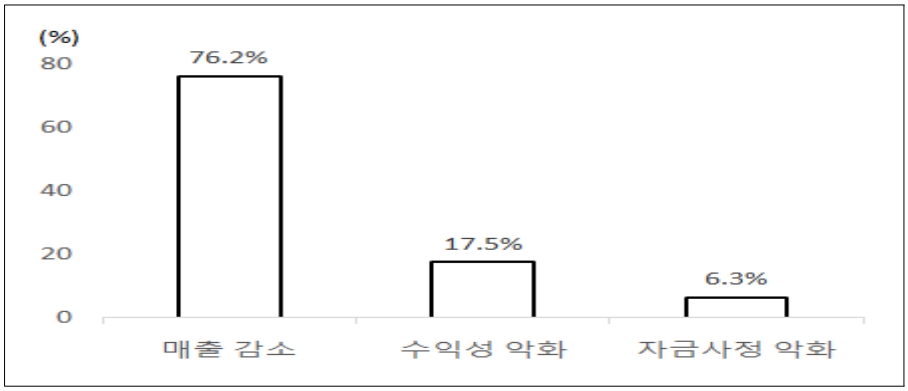
<그림13>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진단



○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는 '매출 감소'인 것으로 나타남

- 최근 경영상 가장 큰 애로에 대해 76.2%가 '매출 감소'를 응답하고 이어 '수익성 악화'(17.5%), '자금사정 악화'(6.3%)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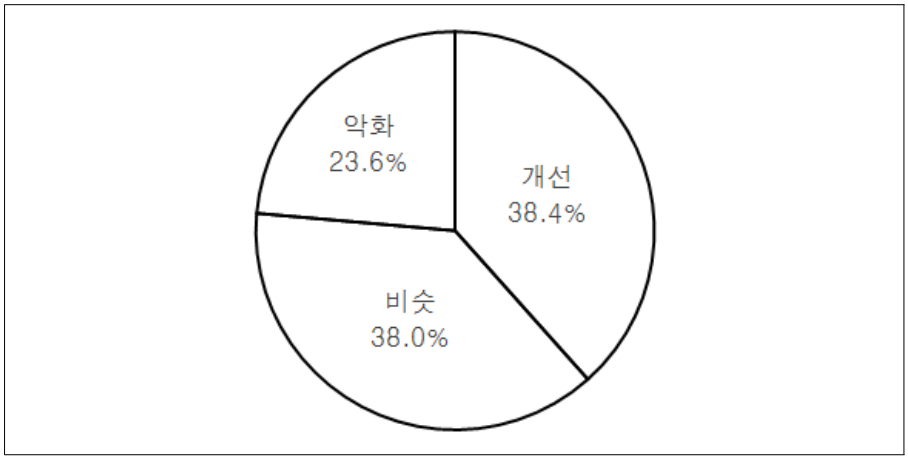
<그림14> 최근 중소기업 경영애로



○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 호전될 것으로 기대

- 지난해 대비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38.4%가 ‘개선될 것’이라고 응답했으며, ‘비슷할 것’이라는 대답은 38.0%, ‘악화될 것’이라는 응답은 23.6%로 나타남

<그림15> 올해 중소기업 경영상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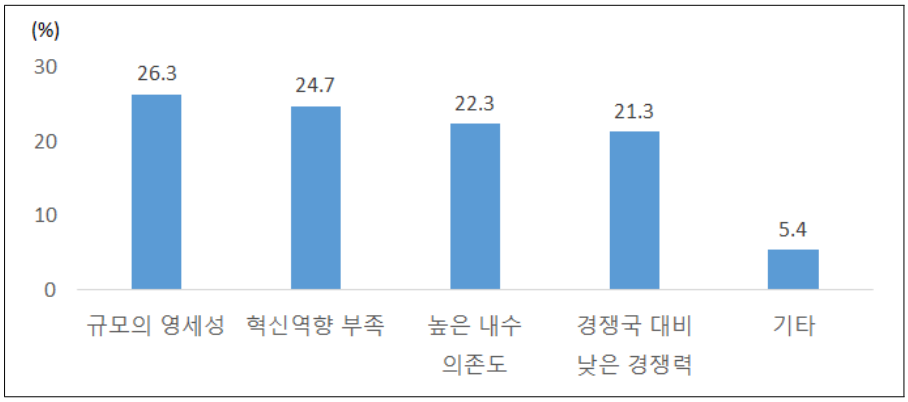


□ 중소기업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

○ 중소기업이 판단한 국내 중소기업의 문제는 ‘규모의 영세성(26.3%)’, ‘혁신 역량 부족’(24.7%) 등을 주로 꼽음.

- 이어서 ‘높은 내수 의존도’(22.3%), ‘경쟁국 대비 낮은 경쟁력’(21.3%), ‘기타’(5.3%)’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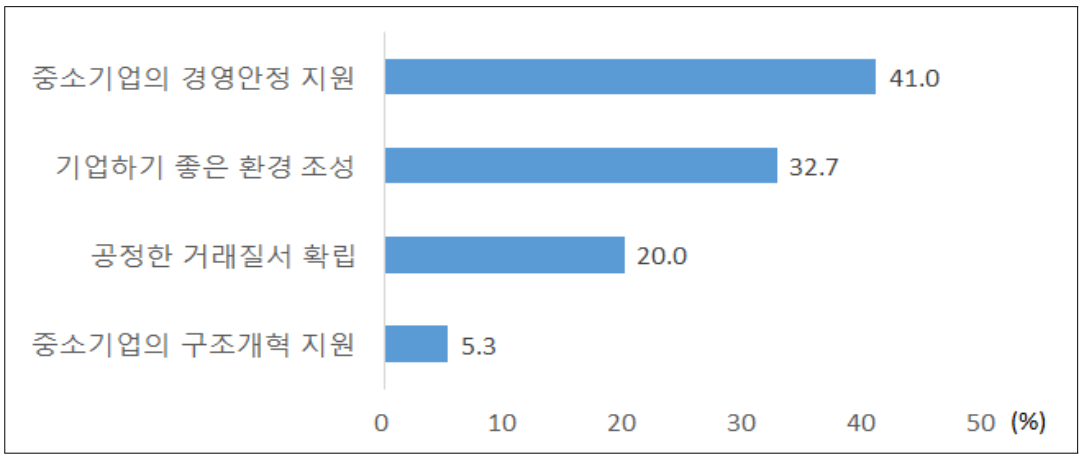
<그림16> 중소기업 문제



○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‘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’이라는 응답이 41.0%로 가장 많음

- 이어서 ‘규제개선·투자촉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’(32.7%), ‘공정한 거래질서 확립’(20.0%), ‘중소기업의 구조개혁 지원’(5.3%), ‘기타’(1.0%)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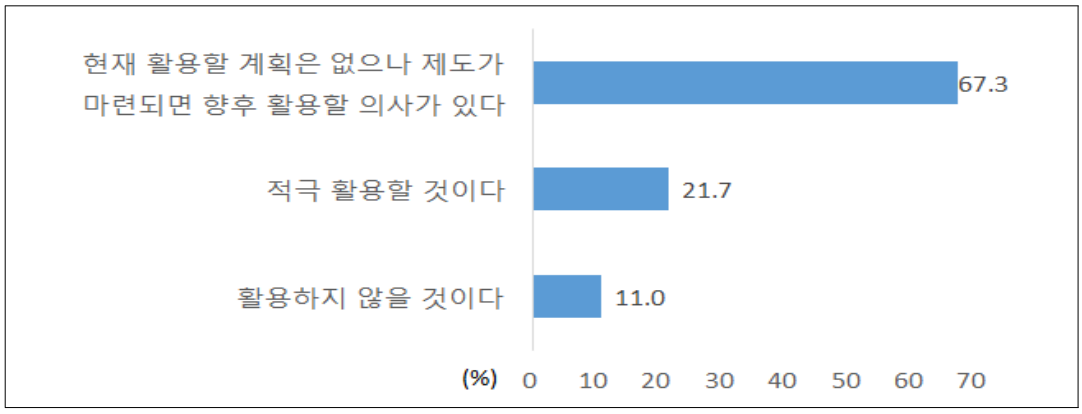
<그림17>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



○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속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안 제정을 추진중인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해 67.3%가 ‘현재 활용할 계획은 없으나 제도가 마련되면 향후 활용할 의사가 있다’고 응답했으며, ‘적극 활용할 것이다’라는 응답도 21.7%로 나타나 89%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. ‘활용하지 않을 것이다’는 11.0%에 불과

<그림18> 사업재편지원제도 활용 계획



4. 시사점

□ 중소기업 경영지표 및 체감경기 조사결과 현재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좋지않음을 보여주고 있음

○ 실물지표상 생산, 매출증가율이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정체성을 보이고 있음

○ 체감경기 조사결과에서도 현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

□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는 고용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

○ 중소기업 경영지표 중 매출, 출하 등 성장성 지표의 부진으로 고용 및 설비투자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음

○ 체감경기 조사에서도 매출 감소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로 지적되어 실물지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어 성장성 복원이 시급

□ 다행히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저성장 기조가 올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

○ 경기선행지수가 상승 추세이고, 수출 여건은 어렵지만 내수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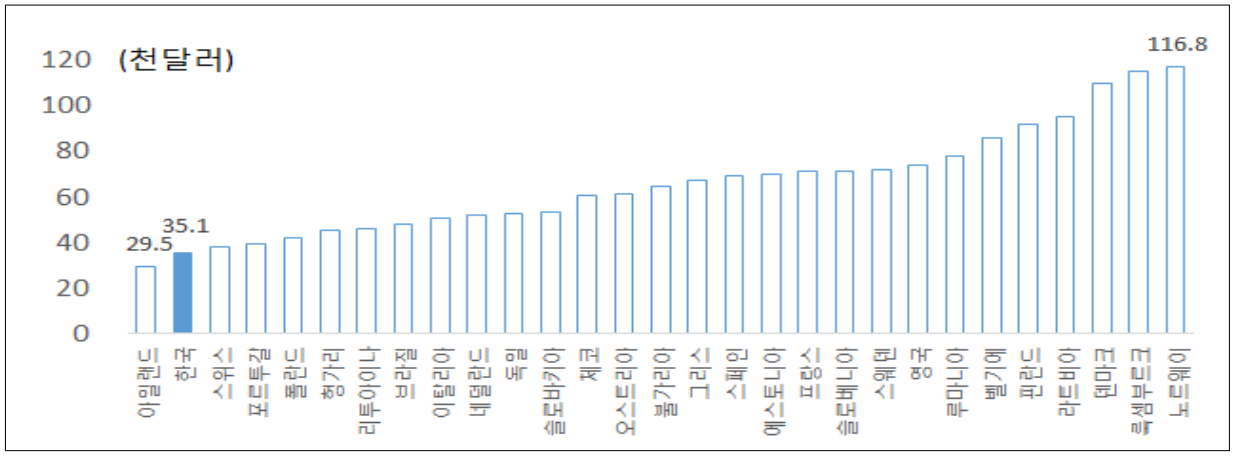
○ 체감경기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업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

□ 따라서 경기회복 기조의 흐름이 기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데 매진할 필요가 있음

○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

- 중소기업은 '규모의 영세성', '혁신역량의 부족' 등을 국내 중소기업 문제로 진단
- 실제로 전체 제조업체 중에서 10인 미만 소규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82.3%(13년)로 미국(52.0%, 12년), 일본(69.2%, 12년) 보다 높은 편
- 국내 소규모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3만 5100달러로 아일랜드(2만 9500달러)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독일(5만2400달러), 영국(7만3700달러)보다 낮음

<그림19> OECD 주요국 소규모기업 노동생산성 비교('11년, 구매력평가기준)



* 출처 : OECD, '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'

○ 중소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을 대비하여 R&D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경쟁력 확보노력을 해야 함

○ 정부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구조개혁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역량을 집중할 필요

- 단기적으로 경제상황 급변동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성장성을 회복시키고,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혁지원에 역점을 둬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
- 특히 현재 추진중인 사업재편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신속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여 경제활력 제고 기대